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삶과 예술의  
불분명한 관계에 대한 작업 연구  
- ‘돌봄’(Caring)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조소전공  
강 민 숙

삶과 예술의  
불분명한 관계에 대한 작업 연구  
- ‘돌봄’(Caring)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문 주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조소전공  
강민숙

강민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원장 이용덕 (인)  
부위원장 권대훈 (인)  
위원 박제성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삶과 예술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돌봄’(Caring)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수행된 나의 창작 과정과 이에 따라 파생된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끊임없이 개인과 집단의 유용성과 생산성을 증명하느라 바쁜 오늘날 예술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채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립되어 버린 현상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예술이 단순한 ‘미적(Aesthetic) 경험’을 위한 예술이 아닌, 나의 삶과 사회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이 되기를 기대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일상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됐다. 일상이라는 개념적 의미와 동시에 예술가들에게 작업의 무대로서 일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나의 작업은 ‘걷기’와 ‘대화’라는 보편적인 방법론을 통해 일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나의 작업은 일상으로 확장되며 마주한 사물, 사람, 사건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진 트리를 돌보기 위해 불법적으로 섬을 점령하는 행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너(Loner)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행위, 판매에 게으른 빈티지 가게 사장님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15시간의 대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나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잊힌, 버려진, 사랑받지 못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저평가된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되돌리고자 하며 나아가 그들의 가치를 구출하고, 회복하고, 되찾고자 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돌봄’이 있다. (생략)

‘돌봄’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수행된 ‘마이크로 폴리티컬 제스처’(Micro Political Gesture)는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느림’과 ‘작음’을 유지한 채 예술적 경험으로서 관객과 공유된다. 이 경험은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 행위인 ‘돌봄’이 예술적 행위로 변주되며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와 미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참여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예술 창작 과정으로도 확장되어 삶과 예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주요어: 삶과 예술의 관계 회복, 걷기, 대화, 돌봄, 마이크로 폴리티컬 제스처, 시적 공간, 예술로서의 출판

학 번: 2014-20757

## 목 차

1. 들어가며 .....	1
2. 일상으로의 확장 .....	5
3. 일상으로의 개입	
3-1. 견기 .....	8
3-2. 대화 .....	12
4. 돌봄: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	14
5. 한계 .....	20
6. 나가며 .....	23
도판목록 .....	24
참고문헌 .....	26
Abstract .....	27

##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국문초록	이 과정의 중심에는 '돌봄'이 있다.(생략)	이 과정의 중심에는 '돌봄'이 있다.
p5:8	...일상은 지식의 모든 분야 외부에 있는 동시에 그것을 가로질러 놓여 있기에 하나의 영역이 아니 파라-필드(Para-Field) 또는 메타-필드(Meta-Field)에 가깝다고 말한다.	...일상은 지식의 모든 분야 외부에 있는 동시에 그것을 가로질러 놓여 있기에 아니라 파라-필드(Para-Field) 또는 메타-필드(Meta-Field)에 가깝다고 말한다.
p13:8	...이는 나의 경험을 좀 더 좀 더 가까이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나의 경험을 좀 더 가까이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p14:24	버리진 크리스마스트리를 구하는 행위...	버려진 크리스마스트리를 구하는 행위...
p20:30	즉 이는 관람자가 나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관람되기보다는 조금 더 생생한 경험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관람자가 나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관람하기보다는 조금 더 생생하게 경험 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이다.<sup>1)</sup> 어릴 적부터 누구나 한 번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들으며 자라왔다. 사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가능성을 응원하는 듯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압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무한 궁정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거절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취만을 원하는 사회의 요구에 길들여져 피곤함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이 성취 사회에서 우리는 ‘가치’(Value)와 ‘유용성’(Usefulness)이라는 단어를 쉽게 혼동하는 듯하다. 이는 시간과 돈이라는 경제적 잣대로만 모든 것이 평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이 유용하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용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쉽게 잊히고,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하기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가치 측정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과 육체가 멈출 때까지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관리하며 스스로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데에 몰두한다.

더글拉斯 하인(Douglas Hine)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의 사교성이 얼어붙은 사회적 빙하기(Social Ice Age)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강력한 국가의 지시 없이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한다.<sup>2)</sup> 이는 편향된 가치 평가 기준에 의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문화적, 질적 가치에 대해 소홀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게 분리된 채 고독하게 되었고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가치에 둔감해졌다.

오늘날 예술 역시 우리의 삶과 분리된 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예술이 삶의 가장자리에서 실험적인 상황에 대한 시험장 역할을 하며 이 만연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벗나가 있길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은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승리자와 패배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보인다.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생각하고, 방황하고, 주저하고, 호기심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의 유용성을 증명하기에 분주하다. 이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삶과 분리된 채 예술을 위한 예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데 함몰되게 만듦으로써 예술(작품)을 단순한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과연 우리는 이 피로의 악순환의 굴레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1)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2) Maaike Lauwaert and Francien van Westrenen, ed., 『Facing Value: Radical Perspectives from the Arts』, Valiz, 2017, p.179.

나는 동시대 예술가로서 다시 한 번 삶과 예술의 관계,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초기 작업 <이름 붙일 수 없는 것>(2013)은 ‘기획’과 ‘창작’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그 실체를 규정하기보다 ( )로 열어 두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 )를 위한 무대’ 기획전의 일부이다. 당시 나는 기존의 전시 공간이었던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의 2층을 인미공 스텝과 관객이 만나는 무대로 상정하고 인미공 사무실의 집기와 가구, 그리고 스텝들을 각기 2층 전시장에 새로이 배치시킨 뒤 연극 무대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인공 돌, 커튼, 하이라이트 조명 등)을 놓았다. 약 한 달간의 전시 기간 동안 큐레이터는 전시장에서 맡은 바 역할(실제 업무)을 하며 무대 위의 배우(퍼포머)처럼 보이게 하였다. 전시장에 연출된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들어선 관객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익숙한 일상의 사물들(선풍기, 커튼, 거울, 휴지통 등)이 드러낸 존재감과 생경함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도 지각할 수 없는 사이에 무대 위의 주체자로서 개입하며 마치 또 다른 배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공간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와 ‘객’, 대상과 관점의 애매한 사이에서 개별적인 의미와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상태로써 공존하게 된다. 이에 관객은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공감각적 체험이나 수행성을 통해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결합하고 해체하는 ‘주체’가 된다.

나는 이 작업에서 완결된 작품이 아닌 열린 구조와 서사를 통해 외부 조건의 지속적 혹은 일시적 결합을 맺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낯선 상황을 연출하고 공감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태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환기시키는 관계적 상황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여전히 다소 제한된 제도화된 공간 안에서의 소극적인 관계 맺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나의 작업은 보다 일상의 공공장소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우연히 마주한 사물, 사람, 사건과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수행적 개입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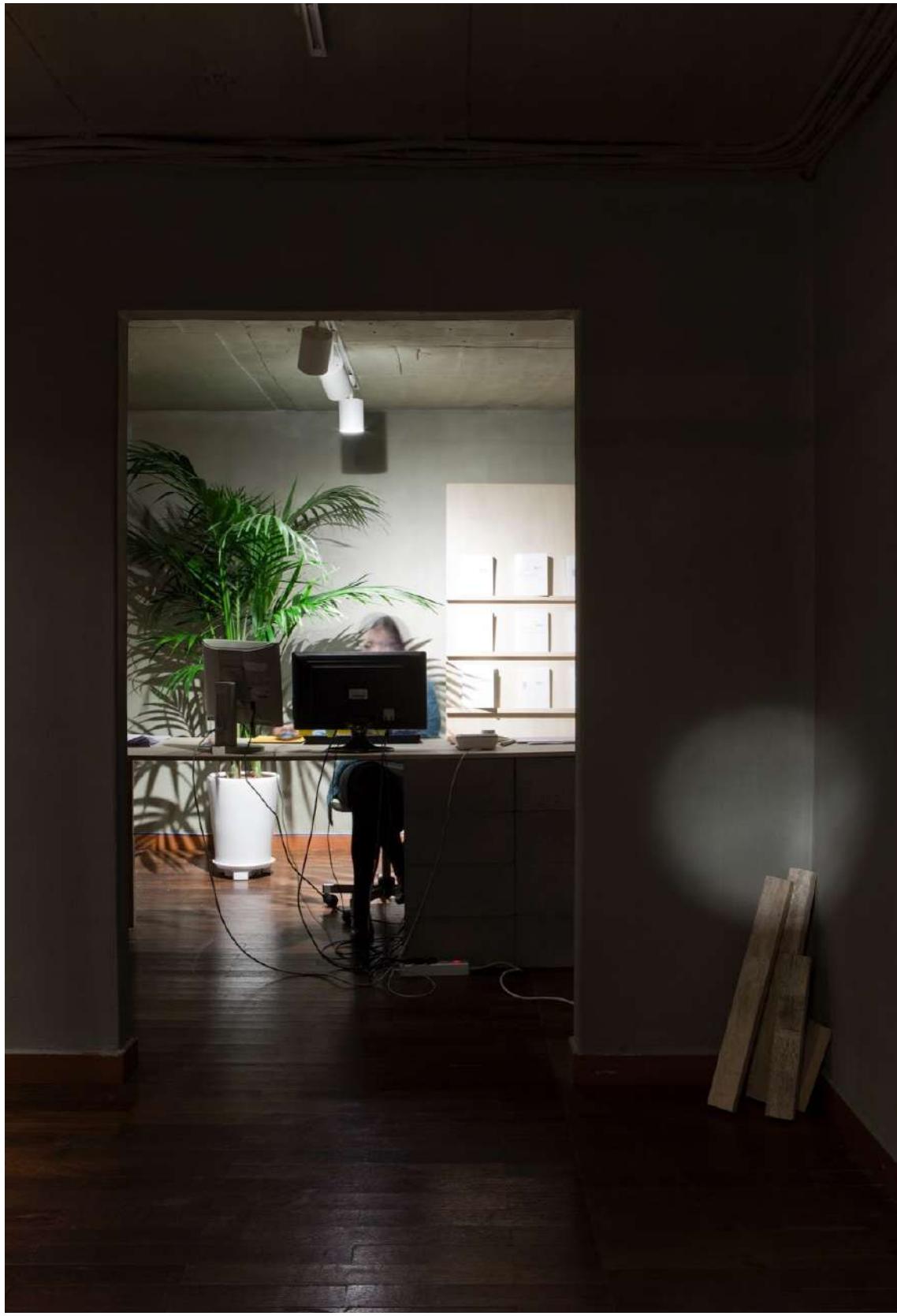
본 논문은 최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작품 <The Christmas Trees Island> (2016-2018, 2020), <Dear H. The Loner’s Funeral>(2016-2017, 2019), <The (In) Visible Vintage Shop>(2017-2018, 2020)을 중심으로 본론 2장 ‘일상으로의 확장’에서는 일상에서 수행되는 예술 행위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미술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3장 ‘일상으로의 개입’에서는 일상에 개입되는 방법론으로서 ‘걷기’와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고자한다. 본론 4장 ‘돌봄: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에서는 삶과 예술의 관계 회복을 위해 ‘돌봄’이라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통해 대안적 삶과 예술의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본론 5장 ‘한계’에서는 ‘일상’을 작업의 물질로써 다를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6장 ‘나가며’에서는 이 연구가 갖는 한계와 의미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도판 1> <( )를 위한 무대> 그룹 전시 중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치 전경, 인사미술공간, 2013.



<도판 2> <( )를 위한 무대> 그룹 전시 중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치 전경, 인사미술공간, 2013.



<도판 3> <( )를 위한 무대> 그룹 전시 중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치 전경, 인사미술공간, 2013.

## 2. 일상으로의 확장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된 나의 작업은 익숙한 일상이라는 의미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흐름 속에 존재하며 날마다 반복되는 고유의 일상을 갖는다. 일상은 열린 공간으로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는 개인의 고유 무대인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가장 가까운 물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A 혹은 B라고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양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따르면, 일상은 지식의 모든 다른 분야 외부에 있는 동시에 그 것들을 가로질러 놓여 있기에 하나의 영역이 아니 파라-필드(Para-Field) 또는 메타-필드(Meta-Field)에 가깝다고 말한다.<sup>3)</sup> 이는 일상이 역사적 서사로 쉽게 설명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존 듀이(John 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1934)에서 경험이 예술의 토대이자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된 후 예술이 일상과 분리되기 시작했으니 그는 예술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sup>4)</sup> 즉 그는 예술이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삶과 예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일상은 뮤지엄, 갤러리 등을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생성함으로써 예술과 삶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20세기 이후 예술에 대한 관점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예술적 반응으로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활동들로써 처음 등장했다. 예술가들의 움직임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자기 영속적인 시스템에 반하며 예술의 대상성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를 흐트러뜨렸다. 1910년-1920년대의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1950년-60년대의 ‘네오 아방가드’를 거쳐<sup>5)</sup>, 70년대의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으로 전환되며 객체 기반의 중심의 형태에서 점점 멀어졌다. 이는 1980년대 후기 유럽과 미국에서 ‘개념미술’과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과 결합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 참여 미술’(Socially Engaged Art)과 ‘액티비즘’(Activism) 등과 같은 작업 형태가 출연하여 동시대 미술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보리스 그로이(Boris Groys)는 『Going Public』(2010)에서 20세기 전후의 예술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칸트 이후, ‘미적(Aesthetic) 경험’만으로도 예술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었던 반면, 20세기 이후 예술은 정치적 차원의 관련성이 미적 예술

3) Ben Highmore, ed, 『The Everyday Life Reader』, Routledge, 2002, p.4.

4) Ronald Lee Zigler, 'The Tao of Dewey', Journal of ENCOUNTER: Education for Meaning and Social Justice Volume 20, no. 1, 2007. p.4.

5) 헬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용어 참조.

생산에 앞서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현대미술은 더 이상 미적 측면이 아닌 ‘시적’(Poetic)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렇게 등장한 예술은 뮤지엄, 갤러리, 비엔날레와 같은 기관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기존 시스템에 저항하는 정치적 제스처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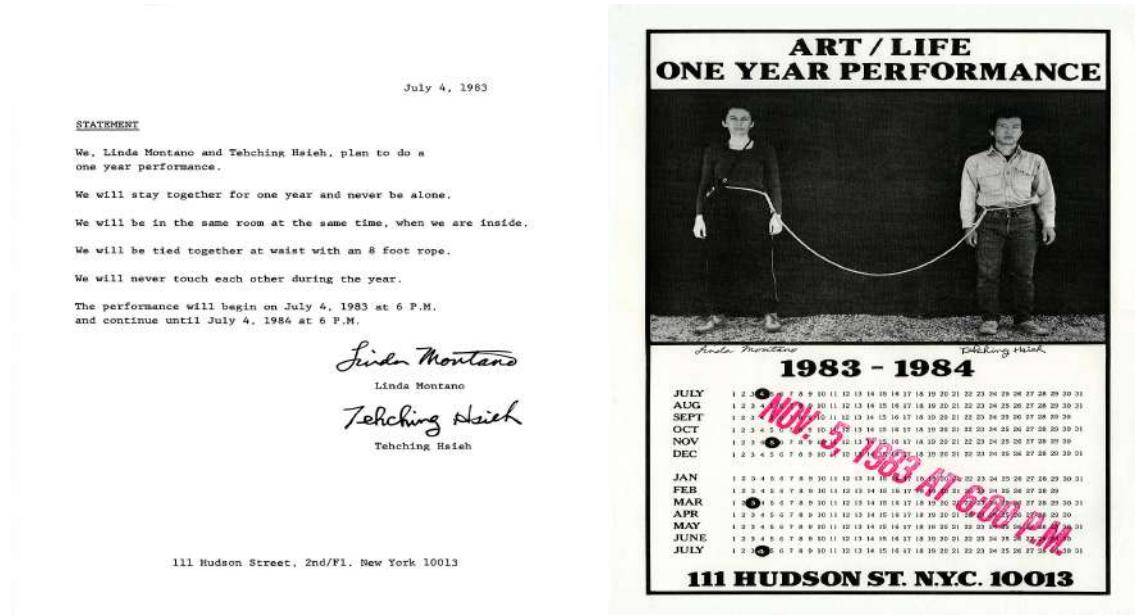
오늘날 예술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의 확장된 나의 작업은 빗나간, 어긋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삶으로부터 분리된 예술의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다. <The Christmas Trees Island>(2016-2018, 2020)는 약 2년간 네덜란드의 두 도시 로테르담(Rotterdam)과 헤이그(The Hague)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거리에 버려진 크리스마스트리를 구하는 긴 여정에 관한 작업이며, <Dear H. The Loner's Funeral>(2016-2017, 2019)은 로테르담의 작은 바(Bar)에서 우연히 로너(Loner)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예술적 제스처로써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The (In)Visible Vintage shop>(2017-2018, 2020)은 테이블 램프를 사기 위해 처음 방문한 빈티지 가게를 약 1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가게 사장님과 나눈 15시간의 대화에 관한 작업이다.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한 사물, 사람, 사건과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진행되는 나의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 참여적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 예술’ 혹은 ‘액티비즘’ 등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1년 동안 5번의 공연과 13년 동안 자신의 삶을 기록한 마지막 공연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작품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테칭 시에(Tehching Hsieh)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내 작품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정치 예술가는 아니다. (...) 나는 인간 생활의 보편적인 환경에 관심이 있다.”<sup>7)</sup>라고 말했다. 나는 이러한 ‘예술은 삶이고, 삶은 예술이다’라는 문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테칭 시에의 태도를 지향한다.

---

6) Boris Groys, 『Going Public』, Sternberg Press, 2010, p.10.

7) Kathy Marks, ‘Tehching Hsieh: The Man Who Didn't Go to Bed for a Year’, The Guardian, April 30, 2014,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7/oct/24/tehching-hsieh-extreme-performance-artist-i-give-you-clues-to-the>.



<참고 도판 1>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 Statement, Paper, 8.5x11 inch, 1983.

<참고 도판 2>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 Poster, Paper, 11x17 inch, 1983.



<참고 도판 3>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 Life Image, Photo, 10x15 inch, 1983. 8)

8) 이 퍼포먼스에서 테칭 시에(Tehching Hsieh)와 린다 몬타나(Linda Montano)는 1983년 7월 4일부터 1984년 7월 4일까지 8피트(2.4m) 길이의 로프로 서로 묶여 1년을 보냈다. 그들은 같은 방에 머물러야 했고 1년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만질 수 없었다. 이는 폴린 올리베로스(Pauline Oliveros)와 폴 그래스필드(Paul Grassfield)에 의해 목격되었다.

### 3. 일상으로의 개입

일상으로 확장된 나의 작업은 ‘걷기’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상에 개입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 3-1. 걷기

‘걷기’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저평가되기 쉽다. 하지만 일상으로의 개입에 있어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나의 일상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동시에 타인의 일상과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즉 일상으로의 개입은 드라마틱한 서사에 끼어드는 것과 같다.

역사적으로 예술가들에게 ‘걷기’는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방법론이 되기도 했다. 19세기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는 그의 에세이 『현대 생활의 화가』(1970)에서 ‘도시 산책자’(flâneur)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20세기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의 작품 『아케이드 프로젝트』(1982)에서 보들레르의 ‘도시 산책자’ 개념을 현대 문화를 해석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해 ‘도시 산책자’로써 바라본 모더니즘 도시에 관한 글을 썼다. 20세기에 기 드보르(Guy Debord)는 ‘도시 표류자’(Dérive)와 ‘스펙터클’(Spectacl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가 이끈 ‘상황주의 인터내셔널’(Situationist International)은 소비자본주의 생활양식의 전복을 꿈꾸며 예술적인 실험과 사회적 혁명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 때 ‘도시 표류자’ 개념은 ‘스펙터클 사회’의 권태와 지루함을 퇴치하기 위한 혁명적인 기술이며 시스템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다.

오늘날 ‘걷기’는 여전히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일상에 개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다준다. 새해가 되자마자 길거리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크리스마스트리들을 구하는 긴 여정,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너(Loner)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행위, 테이블 램프를 사기 위해 우연히 들린 빈티지 가게 사장님과 1년 동안 나눈 15시간의 대화 등 이 모든 작업들은 ‘걷기’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처럼 ‘걷기’는 더 많은 경험을 생성하는 상태에 우리를 내 던지는 적극적인 행위인 동시에 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개입시킴으로써 역사적 서사에 통합되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을 재조명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위의 작업들 중 나는 <Dear H. The Loner's Funeral>(2016-2017, 2019)에 대

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016년 9월, 나는 로테르담의 작은 바(Bar)에서 우연히 로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 바 여주인은 그가 바에서 빈 병을 비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친구들이 없었기에 그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2016년 9월 19일 오전 10시, 그의 장례식장에 참여하였다. 장례식 당일 생각보다 많은 이웃들이 참석하였는데 그의 아들은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장례식장에 왔다고 했다. 그는 긴 말을 전하는 대신 짧은 시를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 아들의 시

살아 있고 완전한 진리는 멈춰 섰다  
전체의 환상  
한 남자이자 아버지 그리고 그 이상  
결코 달성하지 못한 명예  
외로움의 포용  
환상 속의 인내  
총체적 방해된 현실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멈춰 섰다  
모든 것이 삶에서 철수되었다  
고통스럽게 지금은 시계의 봄짓을 철회한다.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후, 나는 우연히 로테르담에서 어느 노인의 시체가 사망한 지 10년 만에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 속에서 얼마 전 참여했던 장례식의 노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그녀의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신문 매체에서 그를 인터뷰하였는데 그는 “나도 외롭고, 그녀도 외롭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 기사를 읽은 후 나는 비정기적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던 같은 묘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우연히 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묘비들은 로테르담 시청에서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여해준 것이라고 했다. 즉 이 묘비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활용되어야 하기에 어떠한 이름을 새길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나는 주변 묘비의 사망 날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가 104열 혹은 105열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짐

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우연히 이야기를 쫓아간 곳에서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하며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였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 그의 아들의 시와 함께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약 42분 43초(A: 21분 2초 B: 21분 41초)의 시간을 고스란히 시멘트 바이널(Vinyl)에 새김으로써 그를 기억하고자 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AD newspaper website. At the top, there's a red header bar with the AD logo, navigation links for News, Region, Sport, show, and login, and a search icon. Below the header, there's a horizontal menu with links for Alphen, Amersfoort, Amsterdam, Apeldoorn, Arnhem, Bergen op Zoom, Breda, Delft, Den Bosch, the Hague, Dordrecht, and Meer... A main headline features a photograph of a residential street in Rotterdam. To the right of the photo is a sidebar titled "JUSTIN" with a list of recent news items. Below the photo, the main article title is "Woman lying dead in a decade Rotterdam home". The article includes a "UPDATE" section, author information, and social sharing buttons for Facebook, Twitter, and Email.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s a "Follow the AD Rotterdams Dagblad on social media" section with a smartphone image and a "MOST READ" section with a grid of news thumbnails.

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우연히 이야기를 쫓아간 곳에서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하며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였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새기는 대신 그의 아들의 시와 함께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약 42분 43초(A: 21분 2초 B: 21분 41초)의 시간을 고스란히 시멘트 바이널(Vinyl)에 새김으로써 그를 기억하고자 했다.

**Woman lying dead in a decade Rotterdam home**

**UPDATE** | In Rotterdam a girl about ten years dead in her home located in the Jan Porcellisstraat. Agents discovered Thursday afternoon her remains after construction workers who were working in the street, had been with her no answer when she rang the bell. They warned them the police.

Edited by: Editorial 21-11-13, 22:59 Last Updated: 04-03-16, 04:28 Source: Reuters

Police say the woman is deceased at the age of 74. In the ten years no one noticed her death. She died a natural death. According to police, she had no family. The elderly woman home made a "a deserted and uninhabited impression. Agents saw a pile of unopened mail at the door. According to a neighbor were among other TV guides.

When the euro was introduced, she asked if I could exchange her guilders

Under Hans Buurman Poldner.

**MOST READ**

- About Enthusiastic 'Bart Smit tapped fingers flynn' (read 97 207 times)
- Man running into the cell after joke colleague (read 70 821 times)
- Designer fed up "half art 'in the Market Hall' (read 27 922 times)

<참고 도판 4> 2013년 11월 21일, 로너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 기사.



<도판 4> <Dear H. The Loner's Funeral>, 2016년 9월 19일 오전 10시 로너의 장례식 참석 당일.



<도판 5> <Dear H. The Loner's Funeral>, 시멘트 바이닐, 42분 43초, 2016-2017, 2019.

### 3-2. 대화

‘걷기’를 통해 일상으로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면 ‘대화’는 자칫 쉽게 지나쳐 버리거나 놓치기 쉬운 것들과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 듣고, 말하고, 침묵하고, 끼어 들며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좀 더 깊숙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공기(Air)를 연구하는 학생’이라고 묘사하는 독일 철학자 피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는 그의 저서 『Bubbles』(2011)에서 ‘상호 주체성’(Inter subjectivity)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엄마 배 속에서 최초의 ‘상호 주체성’을 경험한다고 했다. 이 시기에 엄마와 배 속 아기의 친밀감은 두 명의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구 또는 깊은 대화를 하는 대상과도 같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모두 각자의 버블을 갖고 있으며 서로 참여자로서 두 개의 ‘존재의 영역’이 ‘지평의 융합’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공유 경험의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sup>9)</sup>

작업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경험되는 ‘상호 주체성’이라는 성격은 관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자를 만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함으로써 작가와 관람자의 수직적 혹은 권위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를 통해 작가가 고유한 비판적 인식과 위치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관객의 주체성’을 회복해 주게 되었다.

나의 작업 <The (In) Visible Vintage Shop>(2017-2018, 2020)는 2017년 겨울 테이블 램프를 사려 우연히 방문한 빈티지 가게 사장님과 나눈 약 15시간 동안의 대화에 관한 작업이다. 처음 가게에 방문했을 당시, 가게 문은 어떠한 영업시간을 나타내는 안내 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당시 유리창 너머로 본 가게 내부는 유난히 어둡고 먼지가 쌓인 빈티지 제품들로 가득했다. 잠시 가게 밖을 서성이다가 가게 입구 근처에서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노란 쪽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전화를 거니 몇 분후 그가 가게 옆문에서 나왔다. 이것이 그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가게를 방문한 목적에 맞게 나는 새로 구입할 테이블 램프를 살펴보았고 그는 각 램프마다의 디자인과 역사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뜯금없이 그는 찬장에서 1970년대 네덜란드의 인기 소다 제품이었던 ‘EXOTA’의 오래된 음료병을 꺼내 보여 주며 이 회사가 악성 루머에 연루되어 파업하게 된 경위를 들려주었다. 나는 이렇게 테이블 램프를 사는 것을 잠시 잊은 채 1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가게를 방문하면서 특별한 주제 없이 그와 약 1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대안적인 삶을 방식을 찾는 듯 이야기가 만연하게 늘어지다 끝이 났다.

9) Peter Sloterdijk, 『Bubbles: Spheres Volume I: Microspherology』, trans. Wieland Hoban, Semiotext(e), 2011, pp.17-19.

나는 그와 나눈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록 무형이고, 보이지 않으며, 일시적이지만 어떠한 성취나 판매를 목표로 하지 않고 특별한 주제 없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형성된 상호 주체적인 공간의 생성이 흥미로웠다. 이후 사장님의 동의하에 녹음된 우리의 대화는 고스란히 책으로 옮겨져 출판되었다. 그리고 전시 기간 중 참여자와 함께 그의 대화의 일부를 같이 읽는 ‘모임 읽기’를 진행하였고 ‘모임 읽기’의 마지막은 참여자와 함께 EXOTA 음료수를 함께 나누어 마무리된다. 나는 책과 함께 그에게 구입한 테이블 램프, 아저씨에게 빌려온 ‘EXOTA’ 음료수 병, 그의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을 틀어 놓는데 이는 나의 경험을 좀 더 좀 더 가까이 관객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도판 6> <The (In) Visible Vintage Shop>, 모임 읽기, 30분, 2018

## 4. 돌봄: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걷기’와 ‘대화’를 바탕으로 수행된 일상으로의 적극적인 개입은 오늘날 온전히 가치 평가받지 못한 채 잊힌, 버려진, 사랑받지 못한 것들에 주목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돌봄’(Caring)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그들의 ‘가치’(Value)를 되찾는 일련의 작업들에 집중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가치로 쉽게 환원되는 것들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가치 불균형 림보 상황 속에 살고 있다. 때문에 ‘돌봄’이라는 행위 자체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쉽게 수고스러운 일로 치부된다. 또한 누구나 잠재적으로 ‘돌봄’을 받거나 무언가를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계급이 존재하는 듯 조차 보인다.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일까? ‘돌봄’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고영어인 ‘큐레’(Cure)에서 유래한다. 이는 주의, 관심, 돌봄, 걱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돌봄’의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영역(동물과 식물) 등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유기체)들에게도 필요하다. 사실 ‘돌봄’이라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더욱 빈번히 주고받는 일상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상적인 ‘돌봄’이란 경제적 부의 차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 들에게 지속 가능한 ‘돌봄’을 주어야 할 것이다.

미술사에서 큐레이터(Curator)란 용어 또한 ‘큐레’(Cure)에서 기원하는데 이 때 큐레이터는 작품/작가-관객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정의된다. 예술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동시에 일상에서 마주한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자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돌봄’은 적어도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이 고립되어 있다면 이 조차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나는 주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들에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소외됨을 돌보는 행위에 집중했다. 즉 ‘무엇을 돌보는가’는 나의 작업이 된다. 버려진 크리스마스트리를 구하는 행위, 로너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행위,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 빈티지 물건을 수리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빈티지 가게 사장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돌보는 행위’와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The Christmas Trees Island>(2016-2018, 2020)는 네덜란드의 두 도시 로테르담(Rotterdam)과 헤이그(The Hague)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버려지는 크리스마스트리를 거두어 돌보는 2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2016년 새 해가 시작되자마자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집안에 있던 트리들이 처참히 길거리에 버려져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버려진 트리들을 주워 친구의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에 옮겨 심었다. 사실 처음에는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몇 달 후 커뮤니티 가든 측으로부터 트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항의 메일을 받게 되었고, 벼려진 트리를 옮겨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나는 합법적으로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해 당시 살고 있던 집 앞 작은 공간에 트리를 옮겨 놓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트리는 점차 커져 갔고 이웃의 보행에 방해가 되었다. 이때 불현듯 호숫가의 작은 섬이 떠올라 이 섬을 불법 점령하며 잠정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무엇보다 ‘돌봄’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수행된 ‘마이크로 폴리티컬 제스처’(Micro Political Gesture)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얼어붙은 유대감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삶으로부터 분리된 예술을 되찾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내가 수행한 ‘마이크로 폴리티컬 제스처’는 삶과 예술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두 영역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나는 이 불분명한 공간을 앞에서 보리스 고리(Boris Groys)가 앞에서 언급한 ‘시적’(Poetic)이라는 표현을 빌려와 ‘시적 공간’(Poetic Space)라고 말하고자 한다. 즉 ‘시적 공간’은 고립, 단절 등이 아닌 유대, 결속, 신뢰 등과 같은 질적 가치가 회복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시적 공간’을 더욱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주변의 작은 것을 돌보는 법부터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돌봄’이라는 행위는 예술적 행위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저항의 의미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시적 제스처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주위의 소외된 존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가치 불균형의 상태를 알림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역중심의 ‘돌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도판 7>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7, 2020



<도판 8>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7,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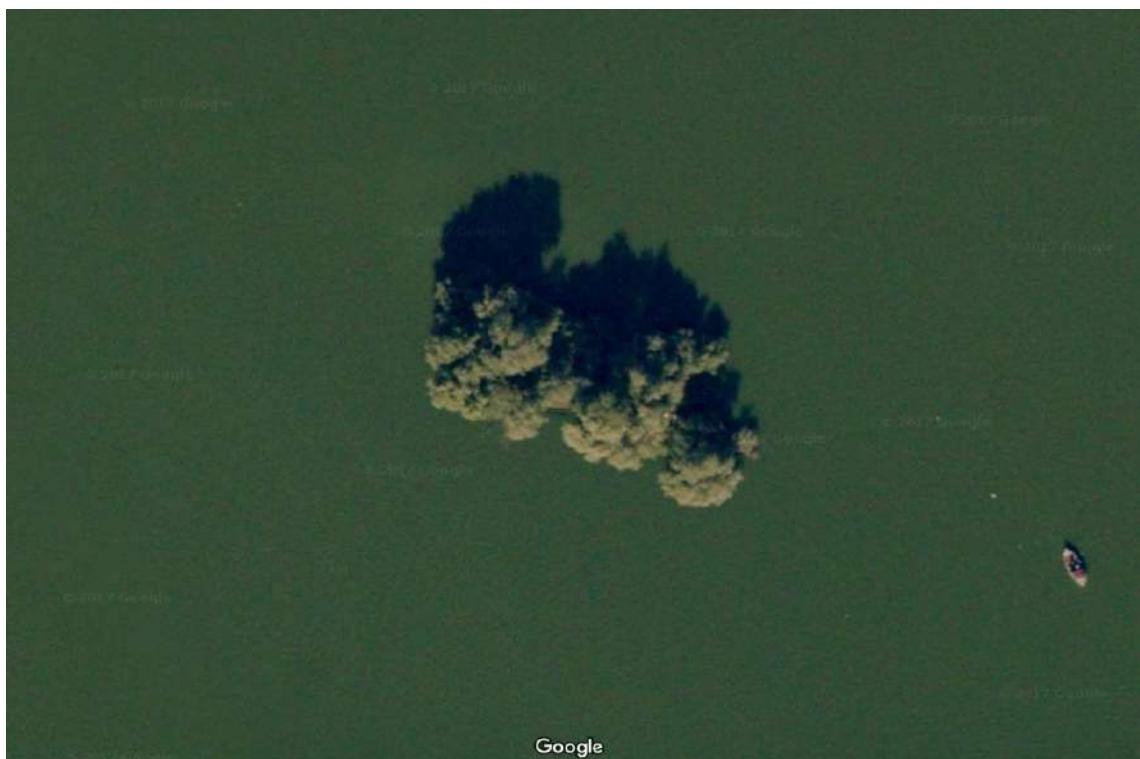
<도판 9>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7, 2020.



<도판 10> <The Christmas Trees Island>, 트리를 보트에 싣고 섬으로 옮기는 모습, 2017.



<도판 11>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7, 2020.



<도판 12>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7, 2020.

## 5. 한계

‘돌봄’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수행되는 ‘マイクロ ポリティカル ジェス처’(Micro Political Gesture)는 삶과 예술의 불분명한 경계를 흐리며 ‘시적 공간’(Poetic Space)을 확장시킨다. 이는 자유를 안겨 주는 동시에 이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

일상을 작업의 물질로 다룬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한 생명체를 다루는 일과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흐르지 않듯이 작업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항상 나의 예상에서 벗나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며 다음 이야기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때문에 혹자는 나의 작업이 자유도가 높은 RPG 게임을 보는 듯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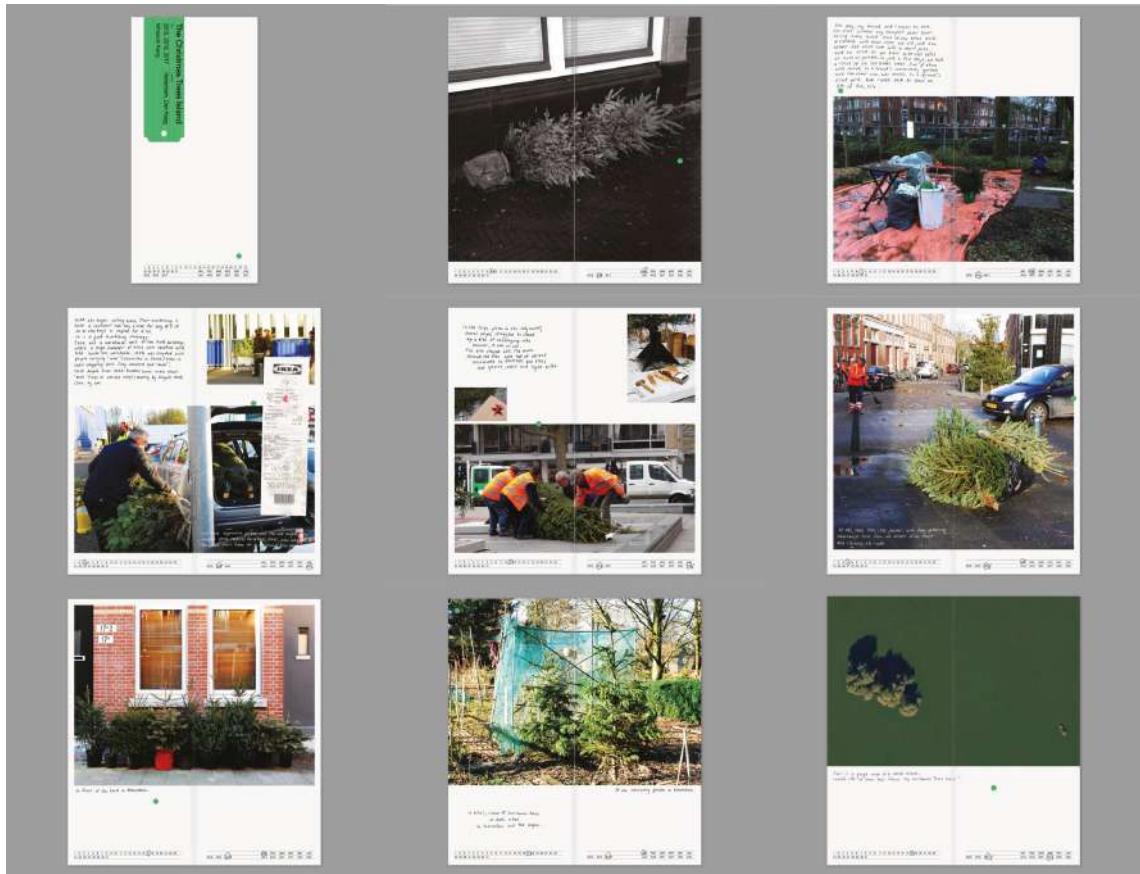
이러한 작업의 과정은 항상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발전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예술가로서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채 긴 호흡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고 개별의 속도를 존중하며 느슨한 개입을 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술가로서 지나친 개입을 하게 되면 두 객체 사이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긴밀히 형성된 ‘버블’(Bubble) 마저도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돌봄’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 작업들은 의도적으로 그 ‘느림’과 ‘작음’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고정된 매체가 아닌 다양한 매체가 한 공간 안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사용된 사물들은 전시장에 연극 소품(Prop)처럼 놓이게 되는데 나는 스토리텔링 퍼포먼스(Storytelling Performance)를 통해 각각의 이야기와 관련 사물들을 엮어 나간다. 즉 전시 공간에 시각적으로 완벽히 재현된 작품 대신 이미지, 영상, 소리, 향, 사물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관객과 순간의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The Christmas Trees Island>를 스토리텔링 퍼포먼스로 진행하였을 당시 트리를 구할 때 사용했던 가드닝 도구 (물뿌리개, 모종삽, 모자, 장갑, 빙 화분) 등을 전시장에 놓은 후 크리스마스트리 향이 나는 시향지를 나눠 주면서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같은 작업은 2020년에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전시된 적도 있다. 당시 비디오를 관람하면서 크리스마스트리 향을 맡을 수 있도록 은은히 향을 피워놓기도 했다. <The (In) Visible Vintage Shop>은 15시간의 대화를 기록한 책을 관객과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모임 읽기’를 진행하였는데 전시장은 빈 티지 가게에서 들었던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즉 이는 관람자가 나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관람되기보다는 조금 더 생생한 경험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자극적이고 극적인 서사, 눈을 현혹시키는 이미지 등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을 눈치채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예술로서의 출판’이라는 행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1960년대와 70대 시각예술 분야에서 ‘예술로서의 출판’의 중요성이 급증했는데 이는 누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책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으며 더 나아가 ‘대안적인 매체로서의 출판’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의 작업에서 역시 ‘출판’이라는 매체는 일상에서 장기간 기록되어 온 작업을 전시라는 형태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제스처로써 예술 세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도판 13> <Three Stories in Three Actions>, 설치 전경, 2018



<도판 14> <The Christmas Trees Island>, 출판, 영문, pp.156, 2020.



<도판 15> <The (In) Visible Vintage Shop>, 출판, 한문 & 영문, pp.110, 2020.

## 6. 나가며

본 논문은 삶과 예술의 관계 회복에 대해 고민하며 ‘돌봄’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예술가로서 나만의 방식대로 잊힌, 버려진, 사랑받지 못한 것들을 거두어 돌보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되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보는 행위는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강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구조와 강제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서 보편적 생각을 해체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의 구조를 흔듦으로써 우리 주변에 저평가된 것들의 가치 회복을 도와준다. 또한 거대한 힘에 휘둘리지 않고 고유한 삶의 속도를 되찾게 해 줌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나아가 ‘돌봄’이라는 행위는 개인의 성취보다 봉괴되는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한 개인의 확장을 꿈꾸는 것이며 결국 이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윤리적, 도덕적 행위인 ‘돌봄’이라는 행위는 동시에 예술적 행위로 표현되며 삶과 예술을 동시에 엮어내며 삶과 예술의 관계 회복을 도와준다. 이를 통해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삶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무엇’이 된다. 즉 삶으로부터 분리된 예술을 되찾아와 삶과 예술의 경계를 흐리며 ‘시적 공간’을 확장한다. 또한 스튜디오를 벗어난 일상의 비물질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은 정치적, 사회적 저항의 전략으로서 비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오늘날 지배적인 시스템에 저항하는 방식이며 아티스트로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나는 일상에서 수행된 제스처를 공유하기 위해 그 이야기의 ‘느림’과 ‘작음’을 유지한 채로 경험으로서 공유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 이면에 숨은 힘을 온전히 전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형태에서 어떻게 대안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은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나의 작업은 ‘돌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통해 삶과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예술가로서 삶과 예술이라는 두 영역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지속되어 영혼 없는 일상의 균열에 침투하여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역기능을 개선하고 살아남은 아름다운 것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도판 목록

- 〈도판 1〉 <( )를 위한 무대> 그룹 전시 중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치 전경, 인사미술공간, 2013.
- 〈도판 2〉 <( )를 위한 무대> 그룹 전시 중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치 전경, 인사미술공간, 2013.
- 〈도판 3〉 <( )를 위한 무대> 그룹 전시 중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설치 전경, 인사미술공간, 2013.
- 〈도판 4〉 <Dear H. The Loner's Funeral>, 2016년 9월 19일 오전 10시 로너의 장례식 참석 당일.
- 〈도판 5〉 <Dear H. The Loner's Funeral>, 시멘트 바이닐, 42분, 43초, 2016-2017, 2019.
- 〈도판 6〉 <The (In) Visible Vintage Shop>, 모임 읽기, 30분, 2018.
- 〈도판 7〉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8, 2020.
- 〈도판 8〉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8, 2020.
- 〈도판 9〉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8, 2020.
- 〈도판 10〉 <The Christmas Trees Island>, 트리를 보트에 싣고 섬으로 옮기는 장면, 2017.
- 〈도판 11〉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8, 2020.
- 〈도판 12〉 <The Christmas Trees Island>, 비디오, 8분 37초, 2016-2018, 2020.
- 〈도판 13〉 <Three Stories in Three Actions>, 설치 전경, 2018.
- 〈도판 14〉 <The Christmas Trees Island>, 출판, 영문, pp.156, 2020.
- 〈도판 15〉 <The (In) Visible Vintage Shop>, 출판, 한문, 영문, pp.110, 2020.

## 참고 도판 목록

〈참고 도판 1〉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 Statement, Paper, 8.5x11 inch, 1983.

〈참고 도판 2〉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 Poster, Paper, 11x17 inch, 1983.

〈참고 도판 3〉 <Art/Life One Year Performance 1983-1984>, Life Image, Photo, 10x15 inch, 1983.

〈참고 도판4〉 2013년 11월 21일, 로너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 기사.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내 단행본>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헬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 <국외 단행본>

Ben Highmore, ed, 『The Everyday Life Reader』, Routledge, 2002.

Boris Groys, 『Going Public』, Sternberg Press, 2010.

Maaike Lauwaert and Francien van Westrenen, ed., 『Facing Value: Radical Perspectives from the Arts』, Valiz, 2017.

Peter Sloterdijk, 『Bubbles: Spheres Volume I: Microspherology』, trans. Wieland Hoban, Semiotext(e), 2011.

### 인터넷 자료

Kathy Marks, 'Tehching Hsieh: The Man Who Didn't Go to Bed for a Year', The Guardian, April 30, 2014.

<https://www.theguardian.com/artanddesign/2017/oct/24/tehching-hsieh-extreme-performance-artist-i-give-you-clues-to-the>.

Maaike Lauwaert와 Joseph Vogle의 인터뷰  
<http://maaikelauwaert.com/articles/interview-joseph-vogl/>.

### 기타 자료

Ronald Lee Zigler, 'The Tao of Dewey', Journal of ENCOUNTER: Education for Meaning and Social Justice Volume 20, no. 1, 2007.

## Abstract

# A Study on the Blurry Boundaries between Life and Art -A Focus on the Act of ‘Caring’-

Kang, Minsook

Departmen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my creative working process, which focused on the act of ‘caring’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 and works derived from it.

We live in a time where we constantly need to prove the usefulness and productiv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In such an era, I started this study from a concern about the phenomenon where art is separated from our lives and more isolated than ever before. It was expected that art would bring closer relationships to my life and society rather than simple aesthetic experiences.

My study started with a reflection on my daily life with which I have a relationship. By examining the conceptual meaning of daily life and its meaning as a stage of work for artists, my work began to actively intervene in daily life through the universal methodology of ‘walking’ and ‘conversation.’

My work expanded into everyday life and shaped itself while closely connecting with the objects, people, and events that I encounter. In the process, I performed the act of illegally occupying an island to take care of an abandoned tree, participated in the funeral of a loner whom I had never met before, and had a 15-hour conversation with the owner of a vintage store who is lazy in sales and thinking about alternative ways of life. Through this way, I paid attention to the things forgotten, abandoned, and unloved from people and tried to restore

peoples' attention to the undervalued and further rescue, restore, and recover their values. 'Caring' is at the center of my process.

Micro political gestures performed around the act of 'caring' exist as experiences that intentionally maintain the story's smallness. I intend to share them as experiences with the audience, but these experiences may be difficult to notice without careful attention.

However, 'caring', an ethical and moral act, is transformed into an artistic act, bringing daily life into the realm of art, extending not only to aesthetic experience, but also to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What is important here is to experiment and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an be extended to the creative working process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

keywords :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 walking, conversation, caring, micro political gesture, poetic space, publishing as artistic practice

Student Number : 2014-20757